

관악여성모임연대

으랏차차! 강의실뒤집기



뒤집개도 뒤집어온



contents

이 인사말

03 교수님들께 보내는 메일

05 왜 강의 중 교수 언어성폭력인가?

10 교수 문제 발언의 유형

10 외모에 대한 난무하는 언급

11 시집/가사/육아에 대한 담론

12 남성만을 청자로 가정하기

13 성적인 이야기가 즐겁지만은 않은 강의실

15 재미있는 예시와 성폭력적 발언의 긴밀한 관계

16 남성중심적 가치관만을 '진리', '과학'으로 인식하는 경우

18 성매매에 대한 남성중심적 언어 속에서 허우적대기

20 저출산의 '위기'와 여성

23 [인터뷰] 비교체험 극과극! 극과극?

23 공대의 한 여학우와의 인터뷰!

25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한 여학우와의 인터뷰!

28 [이슈 추적] 성폭력적 발언으로 해임된

원광대 교수의 경우

30 [좌담회] 말 많은 그녀들이 모였다!

39 화강실 게시판 설문조사 후기

40 대학 내 강의 중 언어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청회 후기

43 기획자보글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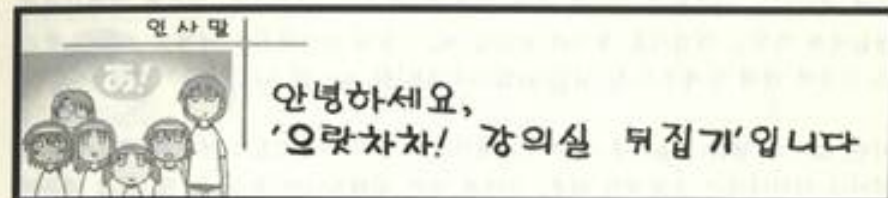
43 강의실 성폭력적 발언과 문제제기의 어려움

44 여성학 수업의 개설/확충

46 젠더인지적 강의의 필요성

47 강의 중 여학우들이 부화되는 상황

49 모니터링단을 모집해요!



으랏차차! 강의실 뒤집기에서는 반여성적 강의환경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보고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강의실 뒤집기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마주쳐야 하는 강의실에서조차 학생들의 목소리, 특히 소수자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대학과 교수의 권력에 대한 뒤집기이자, 교수의 성폭력·성차별적 발언에 대해 여학생들만이 그 불쾌감을 떠안고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뒤집기입니다. 또한, 남성중심적 학문에 대한 뒤집기이고, 교수들의 남성중심적 의식에 대한 뒤집기입니다. 발언의 문제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하는 교수와 싸우고, 강의평가에 불만을 써 봐도 변하지 않는 강의실에 대해, 이제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듯합니다. 표지에 그려진 '뒤집개'는 이러한 뒤집기의 의미를 담은 상징입니다.

근래에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교수 언어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한 교수는 해임되었고, 또 다른 한 교수는 수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해임된 교수의 경우는 여학생들의 '피해사실'이 명확했고, 반복적으로 성폭력적 발언 및 성추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교적 엄한 처벌을 받았으나, 다른 한 교수는 수업을 중단, 학교로부터 안식년을 받아 숨어버리고 문제제기는 오직 남은 학생들 사이에서 논쟁거리로 남아있습니다.

교수의 발언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수 역시 사회의식과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대부분의 교수가 남성이기 때문에 교수사회는 여성주의적 문제제기에 대해 폐쇄적이며, 일상



행위에 배어있는 가부장적 의식에 대해 성찰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가 대학사회와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의 일상행위를 매개로 그들의 뿌리 깊은 의식에 대해 문제제기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수의 행위나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의 본질은 사라지고 대부분의 사례에서 성폭력이나 아니나하는 소모적인 싸움, 도대체 누가 피해자냐는 물음, '그깟' 문제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줘도 되느냐는 항의에 부딪히게 됩니다.

교수의 행위와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면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수업을 듣기 불편하고 불쾌할 정도가 된다면 피해를 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괜찮다, 문제없다'라는 말보다는 '아니다, 문제있다'라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으랏차차! 강의실 뒤집기는 강의실의 여러 문제 중, '강의 중 교수의 성폭력·성차별적 발언'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아직 이러한 강의실의 문제를 명명하는 언어는 부족합니다. '성폭력'은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성차별이나 성희롱은 가벼운 수준에서 인식되어 마치 그것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학우들의 실질적인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언어성폭력'이라고 폭넓게 명시하고, 교수들의 문제가 되는 발언을 '성폭력/성차별적 발언'으로 명명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수들의 문제발언에 대해 많이 알리고, 학내의 담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더욱 세밀한 기준과 풍부한 개념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으랏차차! 강의실 뒤집기의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들께 보내는 메일

존경하는 교수님께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를 가르치시며 연구에 매진하시는 교수, 강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께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서울대(관악 캠퍼스)에 '강의실 뒤집기'라는 모임이 꾸려졌음을 알려드리고 이 활동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은 '제2의 성(性)', '타자화된 성(性)'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진리의 전당이라는 서울대에서도 아직 여학우들은 온전한 수업권을 누리고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강의시간이나 그 외 학습 환경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관악여성모임연대는 이러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하고자 '강의실 뒤집기'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여학생들은 강의실 내의 '사소한' 발언에도 무력해지곤 합니다. 수업 중에 '학교에 여학생들이 많아져서 큰일이다', '여기가 서울대인지 서울여대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실 때, 여학생들은 교수님들이 키워뉘야 소용없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또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표현, 여성성에 대한 비난, 여성의 성역할을 강요하는 말들은 가정, 중·고등학교, 미디어 등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제약해왔던 가부장적인 기준을 곱씹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우리는 '강의실 언어성폭력'이라고 부릅니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시를 든다고 하지만,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면서 남학생들만이 '유쾌하게' 들을 수 있는 예시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청자를 남학생으로 상정하고 '남학생들은치고 나오는 여학생들을 조심해야 된다', '어떤 여자가 좋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학생들은 '있으면서 없는' 소외된 상태에 놓입니다. 여학생들은 교수님이 재미있으라고 꺼낸 얘기나 설명들로 인해 오히려 강의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교수님들과 함께 웃는 다른 학생들의 반응 속에서 유쾌하지만은 않은 여학생들은 자기의 감정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성이 수업에서마저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적인 위치에 놓이게 하는 동시에,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교수님에 대한 불쾌감을 안은 채 수업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강의실 성

폭력이 여성의 수업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문제의 중요성은 이러한 강의실 성폭력이 단지 몇몇 교수님이나 학생들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만은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남성중심적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고는 단지 '특정 이슈에 대한 정치적 의견' 속에만 배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도, 일상적인 말과 행동, 심지어 학문의 지면에까지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성들은 자신들을 제약하는 제도, 학문, 행동, 발언에 일상적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학생들에게 '강의실'은 배움터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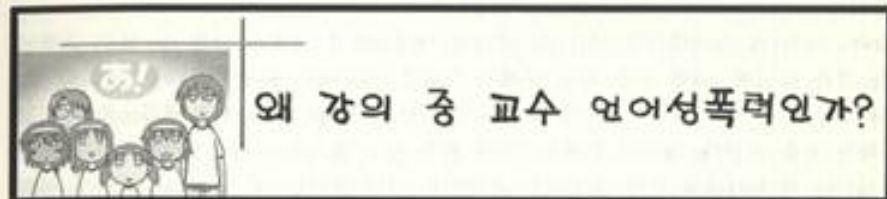
이전부터 이러한 문제제기가 학내에서 있어 왔습니다. 다른 몇몇 대학교에서도 강의실 성폭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습니다. 따라서 '언어성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교수님들에게 문제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 대학에서는 문제 발언을 한 교수가 언어성폭력의 이름으로 해임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강의실 성폭력, 교수 언어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금씩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앞으로 대학의 구성원들이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수님들께서 비판의 소리를 들을 마음을 얼마나 열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토론'을 강조하는 강의실에서조차 교수님에 대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서울대학교의 강의실은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입니까. 이처럼 개개인의 학우들의 목소리가 교수님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상황에서,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함께 모으고 강의실 환경에 대한 여성주의적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우리 '강의실 뒤집기'의 결성 취지입니다.

'강의실 뒤집기'는 1학기 동안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사례에 대한 문제지점을 알리고, 학내 상황을 진단해보는 의미에서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할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해 학내에 문제의식을 환기시키는 활동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2학기에도 강의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될 것 입니다. 여성의 수업권, 학습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저희의 활동에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신대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다시 한 번, 저희들의 취지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2005년 9월 1일
관악여성포럼연대 강의실 뒤집기 올림



강의실 뒤집기는 강의실에서, 넓게는 학내 전반에서 일어나는 교수¹⁾의 여성을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발언들, 한마디로 여성주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²⁾ 말들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을 활동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뒤집기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왜 하필 말을 문제삼는가?" "왜 하필 교수를 문제삼는가?" 각 사안들에 대한 글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의문들에 답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왜 말을 문제삼는가?

물론 우리가 말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말을 통한 폭력과 차별이 물리적·제도적인 폭력과 차별보다 더 일상적으로, 더 빈번하게 일어나면서도 그에 비해 문제제기가 덜 되고 있는 만큼 말을 주요한 문제로 부각시키고 싶을 따름이다. 우리는 말을 '실천적으로' 문제삼는다. 우리는 말의 내용이 (이론적으로) 옳으나 그르나를 따지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는 '그 말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은 일종의 폭력이다' '그 말은 일종의 차별 행위다'라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한다.

말을 실천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행위는 처벌받지만 표현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근대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 모토가 아닌가? 근대사회에서 말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할 뿐 아니라 권장되는 것이지만, 말을 실천적 영역으로 옮겨와서 사회적 제재와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금기

- 1) 여기서 '교수'라는 말은 정교수, 부교수, 전임강사, 시간강사 등 학내에서 강의를 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을 일괄해서 가리킬 수 있는 적절한 단어가 없기에 이 글에서는 편의상 '교수'라고 칭하겠다.
- 2) 여성의 사회적 상황을 묘사하는 용어는 아주 다양하다. 성폭력적, 성차별적, 여성억압적, 여성배제적, 반여성적, 가부장적... 하지만 각각의 용어는 한계를 가지며, 하나를 대표로 사용하기는 힘들다. 여기서 각 용어가 가진 한계점들을 논하지 않겠다. 이 글에서는 임시적으로 "여성주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이라는 용어를 쓰겠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그럼 '여성주의'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역시 아주 적당한 용어는 아니지만,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politically incorrect)"라는 말의 페러디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시된다.

물론 우리에게 성차별적인 말을 한 강사나 학생들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런 모든 말에 대해서 처벌을 가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말은 나쁜 말이니 자중합시다'라는 식의 도덕적 캠페인을 벌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의 문제는 '말'과 같은 것도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예를 들어, 초면에는 존댓말을 써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만큼 사회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초면에 반말하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사회적인 제재가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성차별적인 말들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모종의 사회적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그것이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지만).

행위로서의 말 : 명백한 폭력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말이 언제나 '표현'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말은 수행적인 효과를 가진다. 즉, 말도 일종의 행위다. 모든 말이 수행적인 효과를 가지느냐, 특정한 말만이 수행적 효과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논란거리이지만 적어도 어떤 말들이 수행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교사(敎授)나 언어폭력, 위증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성주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발언들도 이처럼 일종의 행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발언들은 종종 비교적 명확하게 폭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특정한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적인 비방, 욕설, 조롱, 협박, 인격모독의 형태로 나타난다. 사실 이러한 비교적 명백한 경우들이 문제시되기 시작한 것도 극히 최근의 일이다. 이런 발언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여성주의적인 인식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폭력성을 인정할 만한 사례들이 많다. 하지만 교수와 학생의 권력의 차이로 인해 고발과 폭로를 위해서는 학생 자신의 미래를 걸어야만 하는 사정이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을 은폐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시급한 것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 학생들이 피해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여론과 제도를 조성하는 것이다.

표현으로서의 말: 가부장적 인식체계의 징표

한편, 우리는 이처럼 그 폭력성이 분명한 발언들만 문제삼으려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잖은' 방식으로 자신의 여성주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사고들을 '표현'한다. "여자는 역시 시집만 잘 가면 그만이다" "성매매가 있어서 정숙한 여성들이 보호된다" 이러한 사고는 별로 짐작지 않은 방식으로, 은연중에, 길다리로, 또는 농담처럼 표현되기도 한다. "이 여자, 별로 못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결혼을 안 했을까요?" 이러한 말이 강의실에 있는 특정한 사람을 향하고 있느냐 하면,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말이 듣는 사람에게 뭔가 가시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하면, 역시 신통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적어도 일부 학생들(대개는 여학우들이다)은 이러한 말을 듣고서 불쾌감(불편함, 화, 짜증 등을 아우르는)을 느낀다. 그리고 이러한 불쾌감이야말로 우리의 활동을 시작케 한 촉매였다.

도대체 왜 자신을 향한 것도 아닌 말이 불쾌한 것일까? 여학우 중 몇 퍼센트나 이런 말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쾌감에 사회적 근거(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다면)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모든 불쾌감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어떤 불쾌감은 단지 사적일 뿐이다(여러 사람이 향수 냄새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향수의 사용에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온당할까?). 또, 어떤 불쾌감은 거꾸로 사회에 더욱 많은 자유와 평등을 가져오려는 흐름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많은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에 대해 느끼는 불쾌감). 우리는 여학우들이 여성주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말에 대해서 느끼는 불쾌감은 이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성 일반에게, 동시에 자신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차별에서 비롯된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주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사고를 '표현'한 말들은 사실상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과 차별을 무시하거나 정당화하기 일쑤다. 실제적인 억압들을 직접 경험했거나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것들을 정당화하는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말은 그 말을 한 사람의 인식체계를 드러내 주는 징표다. 여성주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말들이 드러내는 것은 그 말을 한 사람의 인식체계가 가진 가부장성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가부장적 인식체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내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끼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부장적인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부장적 사회체계를 유지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들 각각에게 '가부장적 사회체계를 유지시킨 죄과'를 묻고 처벌을 가하자는 것은 아니다. (부코식으로 표현하자면) 미세한 권력의 그물망, 모두가 감시자이면서도 누구도 감시하지 않는 사회체계의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하는 것은 논란거리다('책임을 묻는다'라는 발상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사소한 표현, 지나가면서 하는 말, 팔박한 농담 등에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가진 사고의 가부장성을 엿볼 수 있다.

왜 교수인가?

사실 이러한 말들은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다.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성주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말을 한다. 직접적인 폭력에 가까운 말은, 평소의 견해의 표현에 가까운 말은.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하필 교수의 발언을 문제삼는다. 물론 우리의 활동범위가 학내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 하지만 그 밖에도 교

수의 발언이 특히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교수의 발언은 일방적이다. 즉, 교수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학생들이 그에 대해 반론하기가 힘들다. 그에 반해 형제자매, 친구들, 선배나 후배들에게서, 또는 인터넷상에서 그런 말을 접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반론을 하고 논쟁으로 (또는 말싸움으로라도) 끌고 가는 것이 가능하다. 한쪽의 생각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수의 발언에 대해 반론하고, 또 교수와 학생 간에 논쟁이 벌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여성주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발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힘들다면, 자리를 피하는 등의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공간에서라면, 자신이 보기 싫은 글이 떠돌아다니는 게시판이나 사이트는 피해 다닐 수도 있다. 하지만 교수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대응에도 제한이 생긴다. 일반교양수업이라면 비교적 자유롭게 수업을 뱉 수 있겠지만,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양이라면 수업을 피하기는 힘들어진다. 더욱이 전공수업이라면 교수의 발언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여성주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대부분의 발언은 사실상 수업에는 부차적인 발언이다. 여성문제를 수업의 주요 주제로 삼는 수업은 거의 없다. 많은 발언들이 지나가는 말, 수업과 별 연관이 없는 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부차성이 오히려 일방성을 강화한다. 수업과 연관이 되지 않는 말인 만큼, 교수는 그 말에 대한 해명과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수업의 흐름을 위해 그 말에 대한 논쟁을 얼마든지 끊을 수도 있다. 교수가 학생의 학점을 결정한다는 것도 반론이 힘든 이유가 된다.

게다가, 교수의 말은 권위를 가진다. 원칙적으로 교수가 가진 지적 권위는 자신의 분야에만 제한된다. 어떤 사람이 교수라고 해서 그가 가진 사회 전반, 인류문화 전반에 대해서 지식이나 의견이 올바르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교수가 자신의 분야 외의 것에 대한 발언을 해도 권위를 얻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여성주의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교수가 여성이나 여성주의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그가 하는 말은 그가 교수라는 이유로 권위를 얻는다.

이런 점에서 앞에서 말한 '징표로서의 말'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우리의 활동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여전히 많은 교수들이 성별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인 선입견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수집한 자료들은 보여준다. 우리가 수집한 말들은 교수사회의 가부장성을 드러내 주는 징표가 될 수 있다. 즉, 여성주의적인 이슈에 대한 교수사회의 발언들이 소위 '일반인'들의 발언에 비해 더 큰 정당성이나 신뢰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더불어 교수들의 명백한 언어적 성폭력에 대한 대응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근들어 조금씩 교수들의 언어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최근에는 교

수의 언어 성폭력에 법적 처벌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은 본 자료집에 실려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교수가 언어 성폭력을 행했다는 말을 들으면 '설마 교수가...'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수집한 자료들은 교수들이 특별히 여성문제와 관련해서 더욱 바람직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피해 교수에 대한 동료교수의 두둔 역시 그리 신뢰할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자료집에 대하여

앞에서 불쾌감에는 사회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료집으로 강의실 뒤집기의 활동을 알리며 교수들의 여성주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말들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가운데 그러한 불쾌감의 '근거'를 대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은 약간의 회의를 주기도 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근거의 제시가 불쾌감이라는 몸으로 체험되는 생생한 감정이 전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화석화시키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쾌감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그 근거를 듣고도 쉽게 수긍하지 못할 것이며, 반대로 느껴본 사람은 그런 근거를 대지 않더라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한 근거들이 어떠한 의미에서 그리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들은 이미 무던히도 반복되었으며, 웬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들어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자료집은 어쩌면 자신의 불쾌감을 자신의 예민함 탓으로 돌려왔던 여학우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른다. 어쩌면 왜 일부 학생들이 이런 일에 짜증을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이해의 길을 열어줄 지도 모른다. 많이 이야기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들어본 것은 아니며, 받아 들여진 것은 더욱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원래 사회적인 의견은 한두 번의 공적 발언으로 손쉽게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또다시 여성주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발언에 대해 말하는 것에도 분명 의의가 있을 것이다.





교수 문제 발언의 유형



왜 맨날 걸만 보니?
"외모도 수준 이상인데, 한 번 발표해 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던 한 유명 결혼정보회사의 '남녀 등급별 평가 기준'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남성의 경우 학력과 직업, 재산 등 경제력과 관련된 부분이 평가 기준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여성은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 굳이 이런 사례를 끌어오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은 여성과 남성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다. 요즘엔 외모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소비 경쟁에 뛰어드는 남성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외모가 유독 여성을 평가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태는 여전하고, 때로는 불공정한 잣대로 작용하는 것 역시 변함없는 사실이다.

대학이라는 공간도 이러한 사회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향간에 "서울대 여학생들은 못생겼다"는 말이 떠돌던 때가 있었다. 아직도 가끔 교수들이 이야기거리로 꺼내는 말이기도 하다. 장난처럼 들리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학내를 둘러보면 '못생긴' 여학생보다는 후줄근한 남학생을 찾는 것이 훨씬 쉽다. 그렇지만 누구도 서울대 남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 여성에게는 남성과는 달리 외모라는 기준이 당연하게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다. 강의실에서 여학생에게 '외모도 수준 이상인데 한 번 발표해봐'고 이야기하거나, 여학생을 외모에 따라 부당하게 대우하는 교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업 성취도를 따지기 이전에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환경 속에서 여학생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도 여성에게 스트레스가 된다. 몸매가 드러나는 옷이나 짧은 치마와 같은 여성의 노출에 대한 남성의 노골적인 시선은 여성을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는 느낌에서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렇지만 오히려 '노골적인 시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를 들어 노출한 여성이 비난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성의 노출은 그동안 제한되어 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사회적으로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에 불과한 '정숙한 여성'이 되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몸을 꼭꼭 숨기도록 교육받아왔기 때문이다. 여성에 비해 남성들의 노출은 훨씬 허용되는 분위기이다. 한낮에 운동장에 한 번 가보라. 옷통을 휘하 드리내고 축구를 하며 땀을 뻘뻘 흘리는 남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자는 너무 짧은 스커트와 진한 화장 하고 오지 말고 향수도 작작 써라." 이렇듯 꽤나 공격적으로 들리는 이 말은, 그 강의를 듣고 있는 여학생들의 옷차림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제재를 가한다. 이 발언 속의 세 가지 금지사항은 공통적으로 '정숙한 여성'과 반대되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남성의 판타지 속에 존재하는 정숙한 여성의 이미지는 성욕에 무지한 여성이자 한 남자를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 여성이다. 기존 사회가 요구하는 이미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여성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여성의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가부장제가 여전히 공고한 이 사회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여성은 자신의 욕망이 아닌 욕망을 좇아 불필요한 소모를 감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부조리한 현실을 깨뜨리는 데 앞장서야 할 대학이라는 공간이 오히려 여성을 억압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시집 잘 가서 살림하고 애 키우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게도요? ...
"여자들은 공부해 봐야 시집 가면 땡이야."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독신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보통 '노처녀'라고 불리는 이 여성들은 속이 좁고 잔잔하며 가끔 히스테리를 부리기도 하는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미지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 같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당연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끝내 결혼하지 않았다가는 성격에 결함이 있는 여자가 될 지경이니 말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가 차면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결혼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로 간주된다. 요즘 들어 독신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부장적 사고가 뿌리 깊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생각이 유효한 것 같다. 사실 결혼은 가부장제를 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제도이다. 생각해보라. 아내가 집에서 혼자 살림하고 아이를 길러도 가계 경제에 도움은 되지 않으니, 남편은 밖에서 일해 벌어오는 돈으로 명명거릴 수 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사와 육아는 여전히 아내가 맡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남편은 옆에서 슬쩍 거들어주며 가끔 큰소리도 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부부가 평등한 결혼 생활을 약속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사회의 진보적 지성으로 일컬어지는 대학의 남성 교수들도 대부분 결혼에 관한 생각만큼은 사회적 통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농담이라고는 하지만 “제 때 시집을 못 간 여성은 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교수는, 자신 앞에 앉아있는 여학생들이 정상적인 인생 경로를 밟는다면 반드시 시집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 뻔하다.

“여성이 빨리 표준어에 적응하는 이유는 신분 상승을 위해 시집을 잘 가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처럼 여성의 능력이나 노력을 오로지 좋은 남편감을 만나기 위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결혼하면 그 동안의 노력은 소용없는 것이 된다는 위양스를 풍기며 여학생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여학생들은 시집이나 잘 가라”거나 “여자들이 공부해봐야 시집가면 땀”이라는 발언은 여학생들을 수업에서 배제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가사나 육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여자가 일하고 남자가 집에 ‘들어앉아’ 있는 경우도 많아진다”는 한 교수의 발언에서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가부장적 사고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여학생들은 나중에 남편이 반찬 투정할 때 탄소리 하지 말라”는 말은 여성이 가사를 전담하는 철저한 성별분업에 근거한 발언이다. “여학생들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말이나 “나중에 아이 엄마 될 사람들은 잘 들어요”와 같은 말 역시 육아의 책임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남성만을 청자로 가정하기
“여자애들한테 안 지게 분발해야 돼!”

이제 대학의 상황도 조금씩 ‘정상적’이 되어 가고 있다. 아직도 대학에 진학하는 여성, 또는 고학력자 여성에게 성차별적 시선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지만, 적어도 양적으로는 이제 예전처럼 남학생 일색인 강의실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하지만 강의자들은 아직도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것인지는 몰라도, 은연중에, 혹은 공공연하게 남학생들만을 청자로 가정하고 발언하거나,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강의를 듣는 여학생의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몇몇 강의자들은 남학생들로만 가득 찬 강의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여학생들이 강의실에 많으면 “여기가 여대냐”는 식의 노골적인 불만을 표현하기도 한

다. 이러한 강의자의 태도는 여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실제로 강의 듣는 것이 싫어지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강의자들은 남학생들, 특히 이미 군대를 다녀온 남학생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군대 이야기를 굳이 수업시간에 꺼낸다. 예를 들면, 고학력 남학생에게 꼭 ‘군대 갔다 왔나’고 물은 후, 그 경험을 특별히 대단한 것처럼 추켜세운다든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만...’이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청자(혹은 자신의 수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를 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도적으로 던져지는 질문이며, 이를 통해 군대에 갔다 왔거나, 갈 수 있는 남학생들만이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을 굳이 만들어 내어 여학생들을 수업으로부터 소외시킨다. 또 여학생에게는 여학생이라고 하면서, 남학생은 ‘학생’이라고 칭한다든지, 조교가 자신을 지칭할 때, ‘조교형’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일들도 있다. 여학생들이 매우 적은 공대 수업의 경우는, 좀 더 빈번하게 이런 발언들이 등장한다. 한 공대 교수는 “요즘 공과대학에서 공부하는 여학생들도 많아지고, 이 분야에서 일하는 여학생들도 늘어났으니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마치, 원래 공대는 남학생만의 영역인데, 그 영역을 여학생들이 침입했으니, 다시 남성들만이 그 영역을 차지할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린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남학생만을 청자로 가정하는 강의자의 행태는 단순히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학생을 자신의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성차별적 의식의 적극적인 표현인 것이다.

실제로 어떤 교수는 “여자애들한테 안 지게 분발해라”라면서 남학생들에게 직접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강의실에 앉아있는 여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수업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 과거에 여성을 교육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배제해 왔다면, 이제는 이런 식의 상황들을 통해 여성을 강의실로부터 배제시킨다. 이것은 단순히 남학생들이 많음으로써 발생하는 ‘남성적 분위기’의 차원을 넘어, 의도적인 배제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강의자들은 은연중에, 혹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강의를 듣고 있는 대상이 오직 남학생뿐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성적인 이야기가 즐겁지만은 않은 강의실

수업 시간에 (특히 남성) 강의자들은, 소위 분위기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성적인 이야기나 농담을 던진다. 하지만 그 효과는, 강의자가 의도했던 하지 않았든,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많은 남성들은 그 농담에 반응하고 웃음소리를 내는 반면, 많은 여성들은

오히려 불쾌해하고 그 강의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까지 있는 것이다.

일단 성적인 이야기는 여성 비하적인 것들이 많다. 여성을 성적인 관계에서만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성행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거나 하는 것이다. 아무리 강의자가 수업시간에 하는 이야기라도, 성에 관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의 성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강의자의 성에 대한 이야기는 일방적으로 남성만을 성적 관계와 행위의 주체로 가정하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성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테면, [자신이 구매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해 비하한다든지, 여성의 얼굴이나, 몸매 등의 부분을 단지 남성의 성적 경험의 대상에 불과한 것처럼 묘사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 성찰하지 않고서 이것들을 수업 시간에 말하는 것은 성에 대한 자신의 왜곡된 관념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꼭 여성 비하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성적인 농담이나 이야기들도 수업을 듣고 있는 여학생들을 은연중에 소외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동안 야한 이야기는 남성들만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성적인 이야기가 여성 비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소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던 남성들이, 남자만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빠져서는 안 될 것처럼 음담패설을 주고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그 자리에 없는' 여성들은 극단적으로 비하되고 대상화된다. 이러한 행위는 여성에 대한 자신들의 우위를 보충하기 위한 남성의 집단적 '제'의의 일종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수업시간에 특히 남성 교수가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가 은연중에 자신의 강의의 청자를 남성만으로 가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혐의를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즉, 그런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할 수 있고, 폭소를 터뜨릴 수 있도록 '허락된' 성은 일차적으로 남성이고, 아직도 여성이 야한 이야기를 하는 것, 또 그런 이야기를 즐기는 것은 '공식적으로' 본분에 어긋난 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적인 이야기를 수업시간에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성 자체가 그 수업시간의 주제일 수도 있고, 또한 내용상 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꼭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맥락을 고려한다면, 특히 남성 강의자의 경우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조심해



3) 이를테면, (1)연애 관계나 성관계를 남성이 주도하거나, 주도하도록 강요하는 것, (2)돈만 내면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어디서든 구입할 수 있는 것, (3)성과 관련한 농담이나 이야기가 남성에게만 차별적으로 '허용'되는 것, (4)남성의 성적 욕망이나 능력이 남성들만의 커뮤니티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 등이다.

야 한다. 즉, 무심코 꺼낸 성적인 이야기가 과연 필요한 것들이었는지, 혹은 사족이었는지, 또는 그 말이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소외시키지는 않았는지, 강의자는 끊임없이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과 남성이 무리 없이 성적인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되었는가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다.



재미있는 예시와 성폭력적 발언의 긴밀한 관계
"예를 들어..." 무슨 말 하려고?

제2외국어 관련 수업, 논리학 수업, 법 수업 등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말로 설명되는 엄격한 법칙(어법, 법적원칙)을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강의자는 그러한 강의에 고개를 갇우뚱 하는 학생들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 때,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 이해를 돕는다.

예시는 주로, 수강자들에게 친숙한 소재여서 이해하기 쉽거나, 자극적인 이미지 때문에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을 만한 것을 택한다. 하지만, '친숙한 소재'라는 것은 강의자의 주관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고, 남성인 강의자가 생각해 낸 이상 남성들에게만 친숙할 뿐, 여성 배제적인 경우가 많다. 자극적 예시 또한 남성중심적인 성적대상화나 성적 비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남성들에게 친숙한 예시란, 일반적으로 여성들에게 낯선 분야에 대한 예시일 수 있고, 혹은 남성만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시일 수 있다. 스포츠나 군대와 관련된 용어나 예시는 일부 여성들에게 낯설 수 있음에도 아무런 고려 없이 쓰이고 있고, 동시에 남성들만이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남성들에게만 친숙한 예시 이외에도, '자극적 이미지'를 가지는 예시를 통해 학생들을 이해시키려 할 경우에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자극적 이미지'는 곧 유머스러운 것이나 성적인 것 등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성적인 이미지, 특히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남성들의 담론(고정관념, 음담패설, 농담)을 통해 사례를 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시가 이해를 돕기는커녕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한 예로, 라틴어 수업에서 예문으로 "김태희는 비싸다"를 들었다가, 곧 "김태희는 귀하다"라고 정정했던 일이 있었고, 남학생들만이 웃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김태희는 비싸다'라는 예시는 '김태희'라는 친숙한 소재를 가져 온 동시에, 그녀가 '여/자/연/예/인'이며, 여자연예인의 몸값을 평가하는 남성의 시선을 담고 있다. 여자연예인에게 있어 '몸값'의 의미는 단지 무성적인 상품으로서 얼마나 가치있는가, 얼마나 캐스팅 비용이 드는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구매자의 마인드에서 여성을 평가하는 '몸값'

의 의미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비싸다'라는 말이 남학우의 웃음을 유발한 이유는 '비싸다'라는 이러한 중의적 표현 때문이며, 그러한 발언을 한 남성 강의자에 대해 웃음으로써 정서적인 동질감을 표현한 것이다. 웃을 수 없는 여학우, '비싸다'라는 말의 남성적 감각에 익숙하지 않은 여학우들은, 강의자의 발언뿐만 아니라, 남학우들의 웃음 속에 고립된다. 아무리 '김태희는 귀하다'라고 말을 고쳤다고는 하나, 강의자가 발언을 정정한 이유, 발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이상, 말을 바꾼 자체도 오히려 남학우들의 웃음을 유발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논리 수업에서 논증형식에 관한 연습문제에 '가슴이 작은 여자는 브래지어가 필요 없다'라는 대화가 실려 있었다고 한다. 남성의 시선에서, 남성들끼리의 음담패설에 근거한 문구가 비웃기 교재에 있었고 남학우들에게는 웃음, 여학우들에게는 어이없음, 때로는 거부감을 안겨주는 상황은 문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단지, 신성한 수업에 '성적인' 소재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적인 소재가 남성중심적 시선에서 다뤄지고, 그러한 것들은 여성을 자연스럽게 대상으로 치부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의자가 교재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는 것은 다시 이러한 문구를 마주치게 되는 수강자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을 뜻하고, 결국 이러한 교재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예로는, 법학 수업에서 상표법이 '상품의 명성(名聲)'을 보호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에서, 처녀의 명성을 믿고 잤는데 알고 보니 처녀가 아니었다면, 이 법은 그 명성을 믿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예시를 들었다. '처녀'라는 것 자체가 '순결한' 여성을 골라내는 남성중심적인 담론의 구성물인데다가, 상거래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예시를 든 것은, 밑바탕에 처녀성을 구매한다는 맥락이 담겨있다. 예시 속에서 여성은 단지 상품으로 전락하고, 남성은 구매자로 위치시키는 것 자체가 남성중심적인 논리이고, 그 예시를 듣는 여학우들은 그 예시를 통해 수업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짜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남성중심적 가치판단을 '진리', '과학'으로 인식하는 경우

현대인들은 학문이나 통계수치가 객관적 진리와 진실을 담고 있다고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진리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 과학적 발견을 이끌어 내고, 조사를 수행하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믿는다. 중국과의 마찰 속에서 고구려, 발해 역사에 대한 연구가 부

각되는 것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특정한 의도를 규명하고자 유도되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 미국이 세계의 국가에 대하여 '교육', '경제' 분야 등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여 1위부터 순위를 매기는 것처럼 중심과 주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자 수행되는 연구들도 볼 수 있다. 최근 한 과학자가 연구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자 그 연구업적이 손상될까 '생명존중'에 대한 의견이 대장되는 현상을 보면서, 과학적 연구 역시 사회적 상황과 요구에 의해 비난받거나 옹호될 수 있다는 것,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부장제 하에 남녀 간의 차이를 밝혀내기 위한 과학적, 사회학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남녀의 뇌 크기, 뇌 기능, 지각능력, 정자와 난자 등의 차이 비교가 이루어졌고, 이 차이는 여성의 결함을 규명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남성이 더 논리적 사고가 뛰어나고 여성은 감수성이 풍부하다' 등의 명제는 곧 경제활동, 학문 등에 유리한 남성, 예술, 가사양육 등에 적합한 여성이라는 차별성을 만들어내고, 사회성원들은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과학으로 인식하며 성역할을 제한하고 있다.

"한 세기 전 과학자들은 여자의 뇌가 남자보다 작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여자들은 뇌가 작기 때문에 지적으로 열등하고 감정적 약점을 가진다고 생각했다. 수십 개의 연구가 남자는 뇌가 더 크고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데 비하면 뇌가 크다고 할 수 없음을 발견했을 때에도 그들은 번개같은 동작으로 이에 대한 언급을 빠뜨렸다. 다음으로 과학자들은 여자는 남자보다 대뇌의 전두엽이 더 작고 두정엽은 더 크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여성의 지적인 열등성을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뇌의 패턴을 발견한 것이다. 그런데 두정엽이 지각능력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그 후 해부학자들이 돌연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여자의 두정엽이 작다는 것을 발견할 때 까지 실험실은 낭패감에 휩싸였다."

— 케를 타브리스,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중

사실 여성의 열등성을 주장하는 자연과학의 많은 부분이 부정되었고, 성차를 다루는 연구에 이데올로기가 개입되기 쉽다는 논의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과학으로 위장한 저열한 이데올로기가 대학 공간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난자가 운동능력이 없고 정자만 운동한다는 사실이 남녀의 전통적 생활모습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는 교수가 있다는 것을 듣고, '과학'에 성차별적 이데올로기가 개입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언급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자연과학에 대한 비판을 넘어, 사회과학적 연구와 개념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학에서는 남성을 'primary worker', 여성을 'secondary worker'로 범주화한다. 사회구조가 남성과 여성의 노동력을 각각 차별적으로 범주화하고 관리, 통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그 현상을 지시하는 개념으로서 'primary'와 'secondary'를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회과학적 개념이라는 것은 사회현상을 단순히 '지시'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secondary worker'로 여성

을 간주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 없이 개념어를 남발할 때에는 그 현상을 당연히 하도록 만들며 성차별적 의식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개념'을 아무런 비판 없이 써서는 안 된다는 차원을 넘어, 특정학문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여성들을 통제하고 남성들의 가부장성을 옹호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남자가 다리를 벌리고 앉는 게 편하고 여성들은 다리를 오므리고 앉는 게 편한 이유는 신체구조의 차이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종종 볼 수 있다. 자세라는 것은, 언어습관, 식습관처럼 어렸을 때부터 일정한 가치관에 따라 학습된 결과물일 때가 많다. 남자들은 앉는 자세에 대해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는 반면, 여성들은 의자에 앉을 때는 다리를 모아야 하고, 바닥에 앉을 때에는 다리를 한쪽으로 모아 앉아야 한다. 여성이 반사적으로 입을 가리고 웃는 것, 공공장소에서 크게 재채기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남성인 것을 보면, 그것이 신체적,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작용하는 남녀의 몸가짐에 대한 차별적인 허용과 통제의 작용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또한 마찬가지이다. 흡연이 사람의 몸에 해롭다는 점이 도덕적 비난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흡연이 임신과 수유 등에 있어 아기에게 해롭다는 것은 여성에 대한 도덕적 비난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출산을 원치 않는, 혹은 출산을 앞으로 더 할 필요가 없는 여성들의 흡연은 반대하지 않을 것인가? 여성의 애인이 있는 남성의 경우 임신의 문제 때문에 애인의 흡연이 못마땅한 것인가? 여성흡연에 대한 연구는 여성의 흡연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수행된 연구이며, 연구결과는 다시 어불성설 격으로 여성흡연을 통제하는 것이다.

과학적 연구의 동기와 연구과정,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과학적 사실은 사람들의 기존 이데올로기를 공고화하는 근거로서 이용되면서 문제의 본질을 감추고, 상충되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있어도 사회적 요구에 따라 어느 한 쪽이 더 선호될 수 있다. 더 이상 과학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되며, 과학과 진리를 다룬다는 대학에서 이 문제는 그 근본까지를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성매매에 대한 남성중심적 언어 속에 허우적대기
"창녀"가 있어야 정숙한 아녀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1. '창녀' 다시 생각하기

창녀라는 말은 재고되어야 한다. '창녀'라는 것은 흔히 '성매매여성'을 지칭하는 말이라

고 생각하지만, 그 말을 되씹어보면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창녀'라는 말은 지금 사회에서 어떤 특정여성을 지시하기 위해 쓰는 가치중립적인 말이 아니다. '창녀'란 성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는 문란한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말이고, 그러한 여성상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

사람들은, 일상 발언이나 욕을 통해 '정상적'여성으로부터 '창녀'를 구분 짓는다. 그것은 실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성욕, 성적 취향 등을 부정한다. 그러한 여성의 성욕이나 취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부장적 남녀관계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부장제는 '정상적인' 남녀관계 속에 정숙한 여성이 될 '정상적인' 여성을 통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창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부정적인 것으로 구별 짓게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성매매여성을 '창녀'라고 지칭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옛날부터 성매매여성은 '성적 욕망에 가득 차 있는 문란한 여성'으로 간주되었다. '창녀'는 '좋아서' 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윤리를 깨뜨리는 존재로서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한 인식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과 다른 잘못된 인식이다. 성매매여성들은 일상적인 폭력과 관리자의 통제 속에 있으며, 법과 같은 사회제도의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다. 돈을 모으기조차 힘든 구조에서 오히려 빚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며, 의지가 있어도 성매매에서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창녀'라는 이미지로써 여성과 어머니를 통제하고, 남성들에게는 성적 자유를 허용하는 가부장제의 이중성이 성매매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음에도 성매매여성은 단지, '행위자'라는 이유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것이다.

'성관매'만이 문제시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성구매'의 현실을 가시화하기 위해 '성매매'라는 말이 도입되었다. 또한, '성매매여성'이라는 호명은 '창녀', '매춘부', '매춘여성'이 가지는 허구적 이미지를 걷어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성매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을 넘어 적어도 그녀들을 '창녀'라고 명명하는 것은 올바른지 않은 일임을 알아야 한다.

II. 남성의 끝없는 성욕을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하기 쉽다!

남성들은 '남성의 성욕은 통제할 수 없고, 충족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성과 절제심을 가진 존재로서 스스로를 우월한 지위에 위치시키는 남성들이 자신은 '성욕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은 껄림적이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다'는 불가능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성욕이라도 남성의 것이기 때문에 '통제받지 않고 충족되어야 한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다.

아직도 이러한 근거로 성매매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니 남성들은 '독신 남성은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면서 독신 남성들의 성욕 충족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성매매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매매의 주 구매자는 기존 남성이다. 앞뒤 안 맞는 주장과 근거에서도 볼 수 있듯, 남성들은 자신들의

성을 통제받지 않기 위해 걸핏하면 '통제할 수 없는 성욕'을 들먹인다.

게다가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 성매매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남성들의 성욕은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해소할 곳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한다. 그렇다면 강간범죄, 성매매, 성매매관장으로 세계에서 유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남성의 성욕을 근거로 성매매를 옹호하는 것은 '성매매를 원하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만 있는 외침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 기막힌 일은 학교 강의실에서 '장녀'라는 명명, 남성의 통제 불가능한 성욕에 대한 주장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교수들도, 토론수업에서의 남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남성의 성욕이 통제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한다. 남성의 성욕이 통제 불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틀린 생각이고, '동물의 왕국'의 숫사자를 통해 정말 수컷들이 그러한지를 증명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본질을 피해가는 것이다.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무엇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론되는지를 볼 때, 남성의 성적 욕망이 폭력적으로 발현되는 모습에 대한 변명, 어떤 성적 욕망이라도 통제받기 싫은 상황에 대한 의지 표현 그 이상은 아니다. 교수들이 이러한 잘못된 담론과 언어를 강의의 일부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남성중심주의의 거대한 힘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위기'와 여성 "요즘 여자들은 이기적이에요 문제야!"

저출산 위기와 여성에 대한 통계

최근 미국의 한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가입여성 한 명당 1.2명을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의 '위기'라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빨간신호'라고 알고 있지만, 단지 그것뿐, 어떤 이유로 빨간 신호가 들어오게 되었는가는 생각지 않는다. '저출산'이라는 현상 자체가 어떤 모순을 드러내는 지표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척박한 환경이고 출산과 양육이 곧 여성 스스로의 삶에 최고량을 채우는 일이 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우리 사회에서 '빨간신호'가 켜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뒤로한 채, 단지 '저출산'이라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은 겉잡아도 안된 여성에게 '남으라고!'한다.

TV에서는 갑자기 아이들을 여럿 키우는 가정과 어머니에 대해 비추고, 아옹다옹 시끌벅적 영커 사는 모습을 인간미 넘치는 시선으로 그려내기 시작한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한 전문가는 길가다 임신한 여자만 봐도 반갑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여성이

라면 그 누구나가 미디어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끊임없이 출산할 몸으로 인식되어왔다. 출산에 대한 국가적 의제가 떠오를 때마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마 위에 오른다. 저출산 위기 담론은 앞으로 이러한 현상을 더욱더 부추기게 될 것이다.

이미 강의실에도 저출산 위기 담론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미래를 걱정하는 교수들은 여학우들에게 한 마디 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저출산 위기 담론이 본격적으로 떠오르면서, 강의실 이곳저곳에서 교수들이 "요즘 여자들이 이기적이라서 문제야!"라며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들을 비난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직/간접적으로 여학우들에 대한 공격의 화살이 된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 담론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생각 없이 미디어로부터 자녀들이 많은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고,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들을 비난하면서 그저 사람들이 '낳고 싶다, 혹은 낳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를 바라는 일종의 심리전일 뿐이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진정한 원인과 저출산 위기 담론의 역구성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아 기르기 어려운 사회적 여건 때문이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양육비, 양육기관의 미비함, 여성에게만 전담되는 육아, 임신·양육과 직업을 병행하기 힘든 여성들의 여건 등 전반적인 사회구조에 있다.

"병원에 찾은 M대리 부부는 자신의 아들이 '영양실조'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아기가 영양실조인 이유는 놀이방에서 분유 외에 이유식을 먹이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물론 M대리가 받은 놀이방 스케줄에는 다양한 이유식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M씨가 받은 상처는 비단 아기의 건강 때문만은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 즉 "엄마가 어떻게 애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몰랐느냐"는 시선이 그를 더욱 절타했다. 놀이방에 아기를 찾으러 가는 시간은 오후 7시,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그가 6시 칼 퇴근을 하고 발을 동동 굴러야 간신히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남편이 출근 시간에 아기를 맡기는 일을 담당했지만, 일찍 출근해야 하는 날이면 아침시간은 전쟁이었다. 엄마로서의 자책과 밟고 밟길 곳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주 6일 1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했던 텔레마케터 A씨(28)는 임신 5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임신 초기에 입덧이 심했고, 복통으로 인해 휴가를 자주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계약직인 그를 향한 주변의 눈치가 심해 더 이상 재계약을 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의 경우, 결혼과 임신을 끝 사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5. 1. 24, '출산과업이 계속되는 이유' 중

이러한 원인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을 경우, 혹은 아이를 낳고 여성들이 육아에 있어 소홀하게 될 경우 여성들에게 비난이 쏟아진다. 이러한 비난은 일을 갖고 자신의 삶을 더 즐기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늘어난 것과 저

출산 현상이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들의 자아실현은 임신, 출산, 육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고, 자아실현을 위해 자신에게 시간과 돈, 노력을 투자할 수 있다. 남성들은 육아를 할 것인가, 일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 요구되지 않는다. 육아책임의 1주체가 여성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은 출산과 다른 일 사이의 선택이 요구된다. 육아와 자신의 자아실현은 상충되는 일이 되어버리고, 육아를 선택하지 않는 여성들은 비난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출산은 여성에게 축복이자 재앙입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일과 가정 사이에서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정리하고 등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내 일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를 방치하면서도 일도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죠.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회사의 일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3개월은 울면서 다녔어요. 정말이지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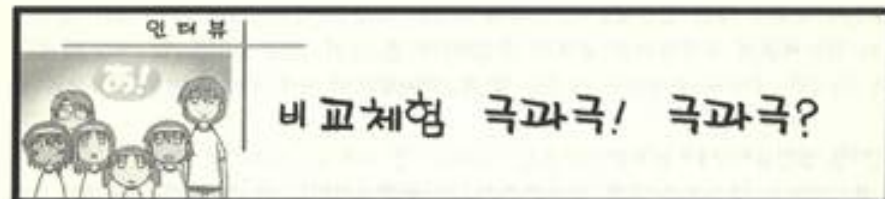
—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5. 1. 24, ‘출산과업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지만 놓치고 있는 것은, 임신과 육아에서 오는 기쁨을 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음에도 그런 바람조차 충족시킬만한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아기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나라가 사람이 부족해서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저출산 현상은 여성들의 이기심이 국가의 미래를 혼드는 사건이 아니라, 개인의 바람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사회적 여건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 답론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강의실의 저출산 위기 답론

대학사회는 여학생을 남학생에 비해 부차적인 교육주체로 간주하고 있다. 강의실에서 교수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의 출산이 필수라고 역설하거나, 혹은 여학우를 미래에 출산할 몸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여학생에 대한 교수들의 성차별적 판단의 밑바탕을 형성한다. 여학생들은 시집-출산-양육의 생애주기를 가지는 자로 인식되고, 이는 여학생은 안정적으로 직업을 수행할 수 없는 자, 학문을 연구할 수 없는 자라는 판결문을 내리는 것과 같다. 여학생에게 학문과 진로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생각은 강의실에서 여학우들에게 던져지는 발언의 대부분에서 짙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별적 시선 아래, 사회의 저출산 위기 답론은 강의실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여자들이 이기적이어서 문제다’, ‘여러분들은 꼭 낳아야한다’, ‘국가와 미래를 생각해보라’는 발언은 여학생들에게 도덕적이고 당위적인 여성상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무비판적으로 국가답론과 미디어 플레이를 그대로 전달, 재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강의실 뒤집기’는 남자교수와 남학우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남녀공학인 대학의 공과대학과 여자교수가 비교적 많고, 학생이 모두 여성인 여자대학의 강의실은 어떻게 알아보고자 인터뷰를 하였다. 뒤집기는 우리학교 공대의 한 여학우와, 이화여대 여성위원회의 한 여학우를 각각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극과극 1. 공대의 한 여학우와의 인터뷰!

Q. 공대생들은 보통 어떤 과목을 듣게 되나?

A. 인문사회계열과는 달리, 전공을 결정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학 학기에 전공필수, 전공선택 등등 중요한 과목을 우선 듣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초강의를 제외하면, 인문사회계열의 교양수업은 한 과목정도 듣는다.

Q. 강의에서 여학우들을 많이 보나?

A. 공대는 여학우의 비율이 워낙 적기도 하지만, 전공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같은 과 같은 학번 여학우끼리 같이 듣는 편이다. 나의 경우에는 5명 정도가 같이 듣는다. 이외의 다른 여학우를 보기는 쉽지 않다.

Q. 남자교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공대나 인문사회계열이나 별 다르지 않다. 하지만 웬지 공대는 성폭력적 발언, 반여성주의적 발언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일단, 공대에서 여학우가 불편한 점은 교수의 문제 있는 발언 때문이라기보다는,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성되는 분위기라는 것, 여학우가 너무 적기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는 것, 항상 여성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불편한 점이다. 강의실에서 여학우가 있으면 일단 튀고, 교수들도 그렇게 본다. 그 자체가 상당히 불편할 때도 있다.

교수의 발언에 대해 생각해 보면, 공학의 내용이 대부분 의식이나 사회에 대한 이야기
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들이 수업에만 충실하다 보면, 문제 있는 발언을 할 여지 자체가
적다. 하지만, 수업과 관계없이 여담을 할 때, 문제발언이 자주 나오게 마련이다.

Q.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가?

A. 문제발언은 대부분은 공학 분야가 '금녀의 구역'이었다는 전제로부터 시작된다. '여
학생들이 치고 나오니 남학생들은 조심해라, 긴장해라' 등 여학생들의 진출을 이상적인
현상으로 보는 발언을 많이 한다. 공대에 여학생들이 많아지는 사실은 물론 주목할 만
한 점이지만, 그것을 남학생들을 자극하는 소재로 이용한다는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
다.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여자보다 나야 한다는 마음을 자극하
는 것이고, 교수 자신도 남자들이 더 우위에 서야 한다는 마인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여학생들이 공학이라는 분야에 부적합하다고 말하는 경우는 없는가?

A.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다. 여학생들이 대학원에 많이 가기도 하고, 굳이 그런 말로 힘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오히려 그런 발언은 인문사회계열의 수업에서 많
이 나오는 것 같다.

Q. 수업에서 '여기 여학생'이라고 부른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확실히 여학우가 있으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여학우에게 더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이 문제라기보다는 남학우들은 '학생' 혹
은 '김군'이라고 불리는 반면, 몇 명 없는 여학우들은 '여학생'이라고 불린다. 여학우가
단 한 명인 수업에서는 내 이름이 '여/학/생'이 된다. 무슨 색 옷 입은 학생, 어디 쪽에
앉은 학생 등 호명할 방법은 많다. 하지만, 굳이 교수님이 여학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학우들과 나를 구분하는 가장 뚜렷한 차이가 바로 성별이라고 느끼기 때문이고,
그만큼 호명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이다. 남학생은 '학생'이 되고, 나는 끊임없이 '여'학생
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분 좋지만은 않다. 여학우가 비교적 많은 다른 단대에
서는 여학우 한 명 한 명을 '학생'이라고 부르지 '여학생'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말이
다.

Q. '여학우가 적어서'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만약 강의 중 교수의 문제발
언이나 행동을 집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공대 여학우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A. 전혀 방법이 없다. 교양수업이고 전공과 관계없는 교수라면, 여학우가 많고 적고를
떠나 직접 문제제기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 정원이 적은데다 수강자

서로를 알고 있는 전공 수업이라면, 간접적으로(메일, 여성모임을 통한 공론화) 문제제
기를 하더라도 누가 한 것인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제기를 하거
가 어렵다. 교수에게 적히면 살기 힘들지 않은가.

Q. 얼마 전 들은 얘기로는, 공대의 한 교수가 "안동지방에서는 제사 때 여자들 입을
창호지로 틀어막는다는데, 우리 수업에서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한 적이 있
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그렇게 심한 말을 직접들은 적은 없지만, 어이가 없다.

Q. 마지막으로, 성폭력적 발언이 남학우/남자교수들이 많은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
가?

A. 공대는 학문의 내용상 교수가 수업에만 충실하다면 문제 있는 발언을 할 여지는 비
교적 적다. 하지만, 공대는 남학우/남자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생겨나는 환경적인 문제
가 있다. 예를 들어, 문제 있는 발언을 할 경우에도 남학우들 대부분은 문제를 못 느끼
거나 심지어 맞장구를 치면서 웃는 경우가 많다. 교수의 문제발언 때문에 괴롭기도 하
지만, 그런 남학우들의 반응은 불쾌함을 더 극대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남학우들과 남
교수들은 그런 의미에서 강의실 안에서 남성의 권력을 갖춘 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떤 여학우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누가 지지를 해주겠는가.

하지만, 남/녀 비율은 성폭력적 발언이 많이 일어난다거나, 적게 일어난다거나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단지 어떤 종류의 성폭력적 발언이 있을
수 있는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강의 중 성폭력적 발언의 문제는 성비, 강의
에서 다루는 내용, 교수의 성향이 복합적으로 섞여있다. 결론은, 여성주의적 문제의식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고 인식하고 있더라도 일상적인 행동에 긴장감을 갖는 교
수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학내 어느 과, 어느 강의실이나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국과국 2. 여화여대 여성위원회의 한 여학우와의 인터뷰!

Q. 여화여대에는 비교적 여성교수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 어떤가?

A. 다른 공학보다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교수, 남교수가 반반인
것 같다.4) 이공계열 쪽은 비교적 남교수들이 많은 편이다. 이 비율은 계속 유지되고 있

4) 연대, 서울대 등의 여성교수 비율은 10% 정도이다.

는 것 같다.

Q. 교수와 함께 술자리를 하는 일은 자주 있나? 우리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과들이 교수들과 함께하는 개강잔치나 오후에서 술자리를 갖기도 한다. 가끔, 혹은 자주 여학우들이 함께하기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A. 놀랍다. 그럴 일은 별로 없다. 전공교수 중 친한 사람과는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술자리를 할 일은 별로 없고, 어떤 과의 학생들과 교수가 단체로 술자리를 갖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Q. 강의 중 여성주의적으로 문제 있는 발언, 성폭력적 발언 등이 많이 나오는가? 수강하는 학생들이 다 여성이고, 여자교수가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심한 발언은 잘 안 나올 것 같다.

A. 일단, 남교수들은 수강자들이 다 여학생이기 때문에 '여자가/여자는'으로 시작하는 말들은 자주 한다. 다 여학생인데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지만, 여교수들이 문제 있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상황이 굉장히 미묘해진다. 특히 '여성성'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의 모성이나 섬세한 성격 등을 찬양할 때가 많다. 모성이나 섬세함 등은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교육된 '도구적인 여성성'임에도 불구하고 무비판적으로 긍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다른 학우들도 수긍을 하는 분위기다. 좀 더 심한 교수들은 내놓고 '여학생들은 집중을 잘 안 한다' 등의 발언도 하신다.

여교수들의 발언이 남교수들의 발언에 비해 큰 영향이 있는 것은, 같은 여자로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남자교수들이 이야기하면 거부감이 들만한 이야기도 여교수가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포르노' 찬반에 대해 여교수가 '포르노를 찬성한다'라고 말해버리면 학생들은 권위 있는 여성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포르노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여교수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속에 숨겨진 가부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는 것이다.

또, 남교수든 여교수든 이성애를 당연시 하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은 똑같다. 게다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더욱 심하다.



Q. 그런 발언을 했을 때 학우들의 반응은?

A. 여성위원회에서 교수 성폭력, 언어성폭력을 이야기하면, 학우들은 '여대에서 무슨 성폭력이 있나'며 반문을 한다. 여대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가부장적 의식, 관습이 근절된 공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 문제가 없을 거라는 환상이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Q. 여성위원회에서 강의실 언어성폭력과 관련해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가?

A. 그래서 문제가 없을 거라는 환상을 깨는 것을 주요하게 삼는다. 여교수/남교수의 구분을 두지 않고, 그 누구나 기저에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화여대라는 공간도 여성주의적으로 완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남교수들은 자신들을 타겟으로 하는 활동이라며 기분나빠하고, 여교수들은 자기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며 모른 척 한다.

Q. 끝으로, 여학우/여교수의 비율이 높은 것과 강의 중 성폭력적 발언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공학과 다른 점과 같은 점은?

A. 다른 점은, 남학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남교수들이 남성중심적인 발언을 할 때가 많을 것 같다. 그런 발언에 귀 기울이고 재미있어할 남학우들이 든든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점은, 그런 성폭력적 발언의 정도나 분위기가 다름지언정, 여대 여교수에게도 여전히 문제는 있다. 여성주의 담론은 발전하고 있고, 끊임없이 일상의 폭력을 새로이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한 성찰들을 뒤로한 채, 자신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느 학교, 어느 교수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극과극?

남학우/남교수가 많은 공학의 공대, 그리고 여교수가 비교적 많은 여대의 환경은 분명 달랐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곳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부장제, 남성중심사회에 위치한 각각의 대학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어렵게 하는 장벽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폭력적 발언으로 해임된 원광대 교수의 경우

원광대에서 수년 간 강의 중에 성폭력적 발언을 일삼던 한 교수가, 지난 5월 8일 해임되었다. (이하 A교수라고 하겠다. 참고로 성폭력 가해 교수의 실명은 공개해도 법적으로 무방하다.) A교수의 해임을 요구하기 위해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에서는 대책위를 만들고 사례 집수를 받자, 20여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접수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요즘 대학생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남자까지 파는데 얼굴이 이빨수룩 남자 값이 비싸다 ... 너 정도면 남자 가격이 비싸겠는데..." "성폭력을 당하는 여자들의 반절 이상은 자신들이 원하거나 그럴만한 틈을 보였기 때문이다." "아름다 얼굴이 두꺼워지는 이유가 아기 낳을 때 병원에서 이미 중요한 부분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이다." "외모로 성적을 준다면 너는 좋은 성적을 받기 힘들겠지." "립스틱은 남성의 성기를 본따서 만든 것이고 여자는 그런 립스틱을 입술에 바르고 먹게 된다." 게다가 문제의 교수는 시험 감독 중에도 여학생에게 지나친 밀착을 시도하는 등 각종 성폭력적 발언과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다.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A교수의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에 대한 사례를 접수 받았다. 이를 토대로 5월 10일에는 익산성폭력상담소에 시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이 교수의 수업을 듣는 해당학과 학생들은 100일이 넘는 동안 수업거부와 집회를 통해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처럼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학교 당국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기는커녕 오히려 '학교의 명예를 위해' 문제를 덮고 감추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테면 학교 당국은, '학교에 지원하려는 신입생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며, 학내 곳곳에 걸려 있던 가해 교수에 관한 대자보와 플래카드를 떼었다. 한술 더 떠서 가해 교수 본인은, "수업도중 말실수를 학생들이 호도한 부분이 있다"며 변명하였고, 심지어 "동료 X교수는 여제자를 성폭행하고도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내가 무슨 문제 있느냐"라고까지 말했다. [후속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A교수를 해임한 학교 당국의 변을 들어보면 이렇다. "A교수가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임이라는 강경한 조치를 내렸다" 여기서도 또 등장하는 학교의 명예다. 즉, A교수가 결국 해임은 되었으나, 문제는 그렇게 쉽

게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거다. 원광대 여성연구모임 '바람꽃'의 한 회원은 전북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에 기고한 글에서 "교수 성폭력을 대학 사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교수 개인의 잘못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교수에 대한 처벌만 내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썼다. 아니나 다를까, 징계위원회 자체가 학교측 5인과 법인측 4인으로 구성되어있을 뿐이어서, 성폭력에 대한 전문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며, 또한 징계를 논의하는 사람들이 '교수들'인 만큼 그 수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해결책이 고려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는 교수의 성폭력이 교무처에 접수되었을 때도 A교수가 수업을 계속 했으며, 진상조사를 할 때에도 교수의 출석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또한 A교수는 자신의 사례를 신고한 학생에게 F학점을 주었고, 한 학생은 A교수의 성폭력적 발언과 인격 모독을 견디다 못해 편입한 지 한 달이 못되어 자퇴했다고 한다. 또 다른 한 학생은 그 교수에게,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 퍼뜨리고 있어. 계속 그러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파멸시킬꺼야"라는 말까지 들었다.

사실 A교수의 발언과 행동들은 해임이라는 처분만으로 넘어가기에는 좀 꺼림칙하다. 일단 떠오르는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브라질의 한 대학의 사례이다. 이 대학의 한 교수가 자신의 수업을 듣는 여학생을 '뚱보(fatty)'라고 불러서 벌금형을 받은 것이다. 이 일에만 비추어 보아도 A교수의 경악스러운 발언들은 '형사처벌감'이다. 하지만 아무리 A교수를 극형에 처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치유나, 여학생들의 수업권의 보장은 자연스럽게 그에 따라오지는 않는다.

A교수의 경우는, 그가 정말 '심한' 성폭력적 발언들을 '상습적'으로 했기 때문에 심지어 대학 당국에서까지 그 심각성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발언들의 '수위'가 높고, 빈도가 높아야지만, 그가 제재를 받을 만큼 왜곡된 성차별적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어떤 질 낮은 교수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발언들이 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남성중심적인 교수 사회의 구조가 있으며, 하나의 대학뿐만이 아니라 대학 사회 전체가 이 구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바꾸어 나가야 한다.



말 많은 그녀들이 모였다!

- 대학 여성운동 단위와 함께 한
<교수 언어성폭력> 좌담회

참가단위: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관악여성모임단, 성균관대 비상대책위원회, 숭실대 총여학생회, 연세대 총여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지난 7월 26일, 연세대학교 모처에서 여러 대학의 여성모임이 참여한 가운데, '강의 중 교수 언어성폭력'에 대한 좌담회가 열렸다. 그동안 학내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던 각 대학의 모임들이 강의실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활동을 함께 고민해보았다.



고려대 여성위원회 '모니터링' 시작한 지 2년 되었어요.
- 고려대의 모니터링 활동과 K교수 언어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야기

좌: 교대 여성주의 일년나기이라는 이름으로 교수 언어 성폭력 모니터링을 시작한지 2년째예요. 작년엔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도 실었죠. 교수들에게 먼저 언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은 강사들에겐 보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올해 3월에도 비슷하게 했는데 작년만큼 활발하진 않고 공식적인 루트보다는 아는 사람을 통해 사례를 수집했어요. K교수 사건이 터진 다음에 교수가 강의시간에 '그러한 발언은 내 방식이다'라는 식으로 잘못을 회피했고 다시 그것이 대자보로 공개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교수가 아예 수업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정경대 학생들이 항의 편지 보낸 것을 '너희는 뒤에서 익명으로 나를 공격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죠. K교수 사건은 '오마이뉴스'에 처음 기사가 나왔는데, 모니터링 측과 사전 합의 없이 기사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거죠. 그 이후에는 교수는 빠져버리고 학생들간의 논쟁으로 옮겨갔어요. 수업권 침해를 겪고 나온 수강생들과 일년나기의 대립으로.

5) 일년나기 프로젝트는 고려대학교 각단위의 여성부와 여학생위원회, 총학생회 여성국의 연합단체로, 작년부터 강의실내 언어 성폭력 근절 '레드카드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레드카드운동이란 축구경기에서 퇴장의 의미인 빨간색을 차용하여 교수의 언어 성희롱, 성폭력적 발언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진 것이다.

들: 교수 발언 내용에 대해 해명한 적 있었나요?

루나: '백락상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 이었다'만 반복했어요.

좌: 대부분 수업 듣는 학생들도 '그런가보다...'라고 생각 했어요. 정경대 학생회장이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일년나기 프로젝트팀으로 그 수업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학생회장에게 집기를 던지면서 거센 비난을 했고 인터넷상에서도 '강의실에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와 같이 심한 말들이 많이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이진희 사건이 터져서 이 사건이 묻혀버리고.

들: 모니터링요원에 많이들 지원을 하나요?

루나: 사이트 가입으로 모니터링 요원 지원을 받았어요. 전에는 인원이 좀 됐는데 이번 K교수사건 이후에는 많이 없어요. 한번 일이 터지면 크게 불거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문제제기가 어렵기도 하구요.

좌: 이번 사건의 영향이 크긴 하였지만, 이전에도 모니터링 요원의 한계는 있었죠. 자기가 듣는 수업만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되는 교수가 있다고 하면,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 몇 명이 그 수업에 들어가서 직접 모니터링해서 일년나기라는 팀 이름으로 문제제기하는 방법을 써보기도 했어요.

고: 어떻게 문제제기를 했었나요?

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때 시간마다 한 발언씩 하는 교수의 경우, 쪽 적어서 왜 문제가 있고 사과를 수업시간에 하시라고, 사과 하지 않으면 다른 대응을 하겠다, 라고 이메일을 보냈더니, 수업시간에 사과했어요. '어떤 사람이 불쾌했다면 그 점에 있어서 사과하겠다'라는 식의 사과였지만요. 대자보로 여러 차례 했어요.

루나: 대자보는 금방 떼어진다고 해도 소문은 금방 학내에 퍼져요. 자보 앞에서 자기 친구한테 전화해서 재밌다는 듯 보라고 한다던가.

(...잘 묻지는 반페미니스트들...)



'별금이나 고소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교수, 강사들이 긴장한다!?'
- 문제제기가 학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학생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교수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는 것은 학교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제기할 경우에, 학교가 교수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제도화 관련해서 학교랑 이야기해본 적은 없나요?

좌: 3월 교육부청 때 요구안으로 제출한 것 말고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본 적은 없구요. 학내 상담소랑 이야기해서 학기 초에 교수들에게 주의 메일을 보낸 적은 있어요.

초생: 학기 초에 교수 강사 반성폭력 교양, 그거 잘 안되죠?

루나: 하긴 해요. 상담실 선생님 말씀이 별금이나 고소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교수 강사들이 긴장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초생: 우리학교엔 학교기구조, 여학생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면 교수들이 '우리 연대는 그런 일 없다' 하는데 화장실 설문지 했더니 사례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모두: 똑같이 똑같이...

그때: 관련 활동을 하면 할수록, 기존의 반성폭력 학칙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강의실 언어성폭력의 한계를 많이 느껴요. 강의실 언어성폭력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존재한다기 보다는 교수의 발언을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교수에 대한 예방과 처리를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기존의 반성폭력 학칙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만 공식적인 처리가 가능하니... 강의실 언어성폭력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든, 듣는 사람이든, 그게 왜 잘못된 것인지 생각 안 한다."
- 강의 중 문제제기를 어렵게 하는 분위기에 대하여

더지: 교수의 발언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말할 당시의 분위기나, 타이밍, 남자들의 반응 등등... 문제점을 적절히 표현할 언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따라서 공감을 얻기도 쉽지 않겠죠.

초생: 교묘한 경우! 생물학과, 의대! 실험 결과를 들이밀면서 남성은 어떻게 여성은 어떻게-식의 발언을 이론으로 소개하잖아요. 반박하면 '이건 과학이다'라고 말문을 막아버리고.

호수: 정말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 듣는 사람들도 그게 왜 잘못된지 생각 안하고, 잘못 없다고 생각하고... 이럴 때 문제제기하기 정말 어렵죠.

초생: 동성애자 이야기 참 심하죠? 제가 들은 한 수업에서 초청 강사가 '내가 유학 갔을 때 내 교수 5사람 중 무려 4명이 동성애자였다. 하하하! 우리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그런 죄인들 밑에서 공부할 바에 학교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으하하하! 뭐 동성애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는데 어쨌든 누구누구도 동성애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호수: 교수가 그렇게 말하면 학생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에요.

더지: 이런 교수 많아요. "남자들은 이런 여자들처럼 살면 좋죠?" 해놓고 끝에 풀랑 "여자도 마찬가지로"라고 덧붙이는. 일종의 방어막.

들때: 여자도 예쁜 여자랑 살면 좋다는 건가.

모두: 으하하

초생: 문제제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수업에 실제 들어가지 않는 이상 해 줄 수 있는 말은 '여러분, 힘내세요!' 밖에 없는 것 같아 아쉬워요.

별: 학생들의 무반응도 좋은 거 같아요. 교수가 썩는 말 했을 때 학생들이 웃어주지 않고 무반응하는 거죠. 교수가 좀 당황하더라구요.

초생: 맞다. 교수를 말고도 학생들한테 해야 할 말도 많아요. 성폭력, 성차별적 발언 터지면 분위기 띄우는(?) 학생들.

남아: 학생들 문제 동참해요. 제가 수업 들었을 때 다수가 기독교인이었는데, 발제 내용 중의 일부분이었던 동성애 문제로만 학생들이 막 이야기했죠. 동성애 혐오 발언 대부분.

들때: 발언이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문제제기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의 집단적이고 비굴한 모습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문제 제길 하는 것 같아요.

남아: 문제제기 했을 때, 그때부터 막 더욱 혐오발언들이 쏟아지면 좌절 T T

호수: 내가 여성주의자인걸 아는 과 사람들과 같은 수업일 때 내가 문제제기하면, '재는 또 저러는구나. 여성주의자라서 그래' 라면서 더 효과 없어져요. 또 전공이니까 선생님 눈치도 보이고...

더지: 수업내용과 관련해서 교수의 관점에 문제가 있으면 논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텐데, 교수가 무의식적으로 별는 말이나 단어사용 등에 대해 문제제기할 기회를 만들기가 힘든 것 같아요. 수업의 중심내용을 흐리게 될까봐 눈치도 보이고, 교수가 문제 있는 말을 할 때, 즉시 팔막한 말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할 텐데-

별: 문제제기 했을 때 교수가 수업시간에 공개 사과해야 효과가 있는데, 교수가 쏴아서 이메일에 개인적으로 답한다거나, 그냥 지난 시간에 말한 거 다 농담이었다고 하고 넘어가요.

호수: 제가 성차별리학(모두 으으으-)! 을 들어요. 그 교수가 자기는 페미니스트인 것처럼, 공정한 것처럼 말하죠. 왜 양쪽의 입장을 아주 공정하게 이야기 해 주는 듯한 거 있잖아요. 발언을 한 순간에 문제제기를 하면 그 맥락에서 그래도 이야기가 되는데, 수업이 지난 다음에 그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맥락을 다 놓쳐버려서 이야기가 안 돼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성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문제제기 할 때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 '언어 성폭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더지: 관악같은 경우는 작년에 원래 강의실 성폭력 모니터링단을 꾸렸다가, 강의실 뒤 집기로 바꿨어요. 바꾼 이유 중 하나는 '성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문제제기할 때 부딪히

는 많은 문제들 때문이었어요.

고매: 사실 성폭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정의가 분분한 상황이지요. 운동에서 이 개념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먼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성희롱이라는 말은 이제 학내 여론단위에서 거의 쓰지 않지만, 성희롱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놓쳐버린 건 아닌지 싶어요.

더자: 언어'성폭력'이라는 말이 가지는 무게감은 가해자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하지만, 문제를 침묵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언어'성폭력'이나 아니냐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오기 쉬운 것 같아요.

초생: 성적 괴롭힘(성희롱)이 오히려 집단에게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와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교양과 규율 문제 등을 제기하기엔 더 유효한 개념인 것 같아요. 특히 대학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의 내규와 교양, 문제 해결이 중시되잖아요. 성폭력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험을 섬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념들이 필요해요. 성희롱이든 성차별이든...

들매: 운동단위가 그 범위를 스스로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성애 중심주의에 대해서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는데 이게 성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별해야 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많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초생: 캠페인을 할수록 개념을 고쳐나가고 조금씩 섬세해지는 것을 느껴요. 케이스를 많이 생각할수록 계속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녀들의 오오오 작전!

작전 하나! 교수, 강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들매: 우리는 유쾌하되, 교수의 인격모독은 심하지 않은 좋은 방법 없나요?

별: 근데 우리가 보기엔 괜찮은데 교수 입장에선 또 그게 아니라고 할 테고, 어려워요.

더자: 심하게 모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럴만하니까. 명예훼손이 들어오면 돈이 좀 들겠조..ㅋ

고매: 관악에서는 어떤 거 해봤어요?

더자: '작전명 D(뒤집기)'라고, 강의실 뒤집기라는 모임을 알리고, 모니터링단을 모집하려고 뒤집게 모양이 그려진 책갈피를 나누어 주었어요. 2학기 때에는 문제 있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좀 강하게 액션을 취해볼까 해요. 다른 학교에서도 같이 뒤집는 게 어떨

지?

초생: 으하하 나는 진짜 뒤집게를 나눠주고, 교수가 별소리를 하면 그걸 들고 뒤집는 줄 알았어요.

(모두 야유. —;;)

들매: 매년 프로젝트를 하되, 학교마다 이를 공유하고 서로 바꾸고, 작전명 D 연세지부처럼. 하하하.

누리: 그렇게 크게 했다가 (명예훼손)걸리면 일일호프로도 못 매우게 되는 건가?

더자: ㅋㅋㅋ. 관악에서는 상습적인 교수에 대해서 방학동안 조사를 해서 사례를 모으고, 그 수업에 들어가서 개강 첫날에 그 사람의 발언과 그게 왜 문제가 있는지 피를 만들어서 수업 듣는 사람에게 뿌릴 예정이에요.

남아: 학교가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6월에 교수성폭력 공청회 장소 빌릴 때에도 힘들었어요.

신차: 그 때, 교수성폭력 토론회 장소 잡을 때 이를 때문에 바로 커트됐어요.

사아: 원래는 대중보고 빌려주는데, 그 때는 문서 봤다가 얼굴 봤다가 문서 봤다가 얼굴 봤다가... (사이 연기력 예술!)

초생: 허가했다가는 높은 분들이 보고 난리 나잖아요.

좌: 성매매 기획 강연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위에서 와서, 장이 누구냐고 묻길래 없다고 했더니, 유령단체 아니냐고... 하하하

작전 하나! 학우들과 함께하는 강의실 이야기

들매: 뭔가 재밌다, 라고 했을 때 개털라 밖에 생각이 안 나요. 불래 교수 있을 때 수업 바로 전에 찌라시를 뿌린다거나.

남아: 근데 그게 진짜 효과가 좋은 거 같아요. 선거 때, 교수가 잘하는 별소리를 적은 피켓을 들고 강의실에 들어갔었는데 반응 좋았어요.

고매: 교수한테 하는 것도 물론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죠.

들매: 물론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강의실에서의 반응이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고매: 머리가 굳어서 자보전, 피씨 이런 거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초생: 한번 크게 기획하면, 아하-중도 알 데스크! 이리고, 놀이공원에 있는 것처럼, 커다란 모기 옷 입고 서서 "교수가 헛소리하면 바로 썰드립니다." 하는 피켓을 드는 거. 계속 강의실 앞에 지키고 서 있는 거야.

신차: 작년 재작년 선거유세를 할 때, 작년 총여 할 때 토끼를 뒤집어쓰고, 악수 한 번 해주고(잘 들으라고). 올해는 유에프오를 뒤집어쓰고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목을 끈다는 것에서 효과가 있지만 자주는 못하죠.

초생: 그런 게 가볍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필요한 스킵이에요.

남아: 그런데 부작용이 많아요. 막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맘대로 잠으니까. 이게 사

람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모두 웃음.)

초생: 프란체스카가 처음 이미지만 유지해줬어도 페러디 하면 딱 좋은데. 보는 사람이 재밌다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는 우리가 재밌다고 느끼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남이: 쓰고 하는 거 정말 재밌어요.

둘매: 너무 노가다긴 한데, 악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어록을 바닥에 꽂 잘라.

초생: 애드벌문을 띄울까.

둘매: 새로 플랑? 명예훼손만 아니면, 악질 교수 리스트 뽑아서 게시해도 재밌겠다.

별: 등에 붙일까.

호수: "공개수배합니다." 이런 거 뿌리는 것도 재밌겠다.

남이: 건물옥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피 뿌려요.

별: 백양로 나무 위에서 안 내려오고.

고매: 애드벌문 재밌을 거 같애.

둘매: 그거 비싼가?? ^^

초생: 자보전은 외로워요.

신차: 옐로우 페이퍼 프로젝트라고, 어떤 주제가 있으면 주제에 대한 글을 쓰고 물들 맡아서 밤에 여기저기 꽃아 댔어요. 그거 찾아서 의견을 뒤에 적어서 가져오면 선물을 주겠다 했죠. 꽤 유용했어요.

남이: 성의 있게 쓰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선물 줄 돈이 많이 들긴 해요...

신차: 나무에 줄을 매달아 놓고 거기에 달아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작전 하나! 강의실 숨통뚫우기

- 정중하게, 그나마 하고 싶은 얘기는 하자

호수: 다른 분들은 강의 시간 중간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어요. 물론 문제제기 하는 것도 어렵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반응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는 신고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친구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해줘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고.

신차: 교수의 성향에 따라 달라요. 교수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고 이정도 얘기를 하면 되겠다... 라고 재보는 게 좋은 듯. 이 교수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자세가 있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유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처음 보는 교수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이: 심각한 사람이었는데, 심한 날은 '자기랑 자기아들은 모든 게 오픈되어 있다, 아들이 자위를 할 때...' 어쨌고 하면서 그리면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를 취하기도;; 교수가

점수 짜기로 유명해서 고민을 하다가 시험 문제 중에 '교수에게 한마디'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썼는데 성적이 아주... 관찮은 교수들은 다음 시간에 사과하기도 해요.

호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 지 매우 고민. 교수가 평소에 여성주의자처럼 보여서 '고쳐보겠다'라는 말을 기대하고 문제제기했던 건데 별로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제기해야 할 때, 키워드 같은 것들을 고민했었어요. 말투나 단어 같은 것들.

둘매: 그 말이 불쾌합니다, 보다는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나 저는 여성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우호적인 표현을.

별: 친구 이야기인데, 논술학원에서 강사가 처녀막에 대한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여학생이 손을 들고 막 설명을 했어요. 남자애들이 매우 많았지만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매우 당당하게 이야기.

둘매: 사실관계 확인이었기 때문에 더 유리했음지.

초생: 그런 식의 말이 유하지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식의 표현.

사이: 강의 평가서에 100자 밖에 안 되지만 의견 표현을 했었어요.

남이: 우리 학교는 교수가 모아서 통계를 냅니다.

초생: 우리는 주권식만 교수에게.

- 강의실에서 하기 어려운 문제제기, 온마인을 통해서

둘매: 모든 수업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학점보복이 우려가 되지만.

호수: 수업 중에 온라인을 잘 이용하는 수업이 있는데, 익명 게시판이 있어서 매우 잘 이용했어요. 익명 게시판 필수화하는 거 매우 좋은 듯.

초생: 근데 쉬울까요.

남이: 온라인 토론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이 있었는데, 때 첫 시간에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하는데 사과를 따먹는다는 표현을 이용하여 그런 거 있냐는 질문을 하는 이상한 교수였어요. 누군가 온라인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글을 삭제하고 수업 내용을 다시 올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뭐 잘못됐냐는 식으로 대응해서 아주...

호수: 학교에서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더지: 익명게시판의 경우, 온라인 테러도 매우 심각하네요...

초생: 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반 학생회 홈페이지 같은 학생 자치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 공간 안에 그런 것들이 잘 이야기되면 좋을 듯해요. 가능한 곳에서부터라도 시작하면 좋겠어요. 모니터링이나 메일도 있지만, 아주 일상적인 문제제기를 위해서 과방, 휴피 같은 주 생활공간인 공간에서 이야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죠.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과 공동체 사람들이 일치하는 경우도 많으니.

둘매: 반 차원에서 관리를 잘하면.

쥬: 온라인에서의 운동이 얼마나 잘 될지 의문이에요. K교수 사건 때, 정경대학의 반익명게시판에서 매우 팔려드는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초생: 저절로 유머가 많이 올라오고, 그 속에서 여성주의적 문제제기가 잘 먹히는 편은 아니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서서 계속해서 반론을 하면, 변화가 보이기도 하구요. 반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유대도 강하지만 이상한 글에 대해서는 다들 입소문으로 추적도 잘 하더라고요. 너무 막가파식의 글은 좀 걸러지죠. 악플이 달리기도 하지만, 글 하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생각을 던져주기도 하네요...

들매: 그런데 온라인에서 인신공격이 너무나 많아서, 관리해주는 사람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되요.

초생: 그런데 그것들이 유형화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민하다, 피해망상이다, 라는 뻔한 논리로 대응하는 게 대부분이죠.

들매: 사과하라는 정도의 요구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호수: 교수에게 사과는 명예훼손이죠.---

누미: 학교에서 하는 강의평가는 공정성을 기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학생들도 잘 이용을 안 하는 듯해요. 우리학교는 스누라이프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서 강의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미 많은 학우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성주의적 평가는 아직 강의평가의 주요한 기준이 아니지만, 때때로, '그 교수 너무 이상한 소리 많이 한다', '좀 기분 안 좋아진다'는 평가가 있기는 해요. 강의를 선택하는데 있어, 교수에 대한 여성주의적인 평가를 필요로 하는 학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부분에서의 평가가 활성화된다면 좋을 거예요.



그녀들의 몸짓과 이야기는 계속된다!

머지: 교수한테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실명으로 문제제기 하기 꺼려하는 학우들을 위해, 문제제기의 내용을 '강의실뒤집기' 이름으로 된 메일로 교수에게 대신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호수: 교수의 오프라인 메일함에 넣는 것을 대신 해드립니다. 같은 것.

누미: 우표값 부자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초생: 우리도 자료집 나오면 사무실 메일함에 다 넣을 계획이 있어요.

들매: 기말에 한 번 더 사례수집하면 실명 공개도 할 수 있을 텐데.

별: 미안했다고 했던 교수는 A+을 줬어요.

사이: 재수강 하지 말라는 뜻?? ㅎㅎㅎ

들매: 교수성폭력 근절에는 메립지가 필요해요. ㅎㅎ



화장실 게시판 설문조사 후기

'으랏차차 강의실 뒤집기'에서는 지난 학기 말, 각 단대와 중앙도서관 열람실 화장실에 '강의실에서의 성폭력적인 발언 사례'를 모으기 위해 설문지를 게시하였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도 교수야?'하고 반문할 만한 강의자들의 어이없는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몇몇 교수와 강사는 여러 설문지에서 공통적으로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고요. 강의자의 가부장성을 드러내는 교묘한 발언을 예리하게 지적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례에는 문제 발언의 어이없음에 대한 동의와 분노를 비롯한 각종 의견들이 답글을 통해 활발히 개진되었습니다. 발언만이 아니라 학문 자체가 가지는 남성중심적인 시각, 여성이 대상화된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성애를 전제로 하는 등 물성적인 커리큘럼, 남학생 위주의 체육 수업 등도 지적된 부분입니다. 반대로 바람직한 사례들과 함께 몇몇 교수님에 대한 칭찬도 있었네요.

강의실에서의 '성폭력'적인 발언 사례를 모은다고 게시한 탓인지, '성차별'적인 사례를 쓰며 주지하거나 성폭력적인 발언과 성차별적인 발언을 구분하는 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넓은 범위에 사용되어 왔던 '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더 섬세하게 나누어 사용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수합된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문제가 되는 사례의 맥락이 잘 전달되지 않아 비판할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 발언을 한 교수에 대하여 현실을 풍자하는 듯 하면서 은근히 여성 비하 발언이 잦다고 불쾌해하는 반응이 있는 반면에 반어적으로 현실을 비틀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상반된 반응도 있는 식입니다. 발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에도 비판의 근거로 삼기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성매매 여성 만난 이야기'를 두고 태연하게 농담을 하였다'라는 말만으로는 그 사례를 들어 문제를 공론화하기가 힘들겠지요. 또한 '말'이 아니라 수업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여러 설문지에서 거론된 한 강사의 경우, 전부터 (여성 비하적인 발언으로) 유명했다든지, 짜증난다거나 변태, 상습범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만 구체적인 발언 사례는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난점은 '화장실 게시판'이라는 매체 자체가 가지는 한계 때문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모을 수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2학기부터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대학 내 강의 중 언어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청회 후기

■ 일 정 : 6월 3일(금) 오후 4:00 ~ 6:00

■ 장 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202호

■ 주 최 : 고려대 여성주의인간기초교과, 교수성폭력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연대(관악여성모임연대,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성균관대 여학생위원회(준), 숭실대 총여학생회, 연세대 총여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외교화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지난 2005년 6월3일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대학 내 강의 중 언어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다. 원광대 모교수 사건에 이어 고대 K교수의 사건까지, 대학 내 '언어성폭력'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던 때, 강의 중 언어성폭력 실태를 알리고, 여학우들이 언어성폭력으로부터 수업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문제제기하고, 언어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공청회가 기획되었다.

이 날, 발제는 <대학 내 강의 중 언어 성폭력 실태- 발제자: 관악여성모임연대, 치치>, <사건 지원상의 어려움과 문제-발제자: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루나>, <사건을 둘러싼 권리 주장간 논쟁-발제자: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 이경환, 조수진>, <사건 해결의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발제자: 연세대 총여학생회, 들레>와 같이 4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또 이후에는 참여자들의 자유토론도 이어졌다.

<대학 내 강의 중 언어 성폭력 실태>는 2005년 5월 2주 동안,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학생 546명(여학생 339명, 남학생 207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응답학생의 대부분이 언어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을만한 발언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의 중 언어성폭력적 발언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미있어하거나 농담으로 넘기는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혼자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문제제기를 했을 때, 교수나 강사의 반응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사과'가 대부분이었다. 바람직한 문제제기 방법에 대해서

는 여학생은 '학내기구를 통한 문제제기'로, 남학생은 '교수와의 개인적 항의 및 문제제기'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였다.

<사건 지원상의 어려움과 문제>에서는 가해자의 발언에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할 필요성, 즉 언어성폭력의 피해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넘어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제기를 받아들여야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또, 교수의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강의실에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언어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한다. 사건처리단계에서는 피해자 혹은 신고자의 신원이 보장되기 어렵고, 누가 신고자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굉장한 중압감으로 다가오며, 또한 가해교수들은 대부분 자신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다 언론 등을 통한 공론화가 진행될 때가 되어서야 명예를 고려하여 사과하고 일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고려대의 사례처럼 교수가 더 이상 수업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자, 학생들의 비난의 화살이 피해자와 이를 대면하는 단채로 돌려졌고, 가해 교수는 그 사이에 잊혀지게 되었다. 사건이 공론화되었을 경우 다른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거나 처리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가해교수를 감싸고, 오히려 문제제기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것은 언어성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보는 동시에 교수의 권위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교의 대처도 미온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정계가 아닌 안식년을 주고 교수가 문제를 회피하는데 일조하거나, 해당교수의 조교는 신고자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하기까지 하는 실태에 큰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강의 중 언어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권리주장간 논쟁>에서는 언어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마치 교수의 수업자유권을 침해하고, 그에 대한 교수 징계과정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권리충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야기하였다.

교수의 수업자유권은 '학생에 대한 인격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충돌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교수는 성희롱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업자유권을 갖는다.'라는 명제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건처리과정에서 교수가 징계를 받거나 수업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 경우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교수가 강의실 밖에서 행위를 저질러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였다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피해자 또는 법원의 판사에게 자신들의 수업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제3자의 권리주장을 반박하였다.

결국, 언어성폭력 문제제기와 사건해결의 과정이 다른 이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언어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교수에 대한 모함이나 편한 공격으로 생각하면서, 피해를 정당한 사유라고 보지 않는 인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언어성폭력의 경우에만 규범위반에 대한 제재와 권리회복의 과정에서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강의 중 언어성폭력 해결의 어려움: 제도적 문제들을 중심으로>에서는 관련제도가 부재한 것, 개별신고자가 해당수업의 피해자여야 한다는 점, 교수의 징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점, 학내 성폭력 상담소가 대학본부나 교수의 권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등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강의 중 언어성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였을 때, 적합한 제도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상시적인 수업모니터링, 실효성 있는 성폭력예방교육, 가해교수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참여자들의 자유토론에서는 각자 교수의 언어성폭력 사례를 이야기하며, 강의 중 언어성폭력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며, 교수나 강사의 여성주의적 인식과 학우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한지를 절실히 느끼는 자리가 되었다. 고등학교 때, 한 문제교사 때문에 정문에서 항의 전단지들을 뿌린 적이 있었다는 한 학우의 경험담으로 한 바탕 웃음과 격려가 쏟아졌고, 새삼 서로 힘을 얻으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기획자보글 모음



기획자보 1. 강의실 성폭력적 발언과 문제제기의 어려움

여성 일반을 남성들보다 못한 것으로 매도하는 말,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이야기, 여성의 관점이라곤 없거나, 그 관점을 편파적인 것으로 보는 수업 내용... 수업을 듣는 여학생을 당장 강의실을 뛰쳐나가고 싶도록 만드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강사의 입에서, 또 발표자의 입에서 심심치 않게 튀어나온다. 물론 이런 말들은 강의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강의실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일어날 때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다.

소극적인 대응이긴 하지만,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자신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강의의 경우에 그러기는 힘들다. 물론 수업 중에 나가는 것도,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그런 경우 불이익은 모두 그 학생이 감당해야 한다. 더군다나 전공이나 대학국어 등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수업의 경우에 그런 대응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학생에게는 수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수업이 듣기 싫으면 학생이 자리를 드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개인적·제도적인 문제제기의 어려움

그런 말이나 분위기는 싫지만 수업은 들어야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분위기를 바꿔 나가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강의실에서 그런 적극적인 대응은 현실적으로 힘들거나, 실효가 없다. 먼저 강의시간 전후에 말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흔히 학생들에게는 묵묵히 수업내용을 습득하는 것만이 허용되며, 학생이 강사에게 도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주제넘은 것'으로 생각되는 현재의 분위기에서 학생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효력을 가지기 힘들다. 강사는 그 학생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수업을 진행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강사가 낮은 학점 등으로 학생에게 '보복'을 하더라도 학생은 속수무책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익명게시판 등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실효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문제제기가 힘들다면, 제도를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서울대에는 강의평가제도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강의평가에는 수업의 여성비하적인 성격과 관련된 항목이 없다. 계속해서 이런 항목을 만들기를 요구해왔고, 이 항목을 만들겠다고 본부에서 답변을 하기도 했으나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려면 댄 아래의 '기타 하고 싶은 말' 항목에 해야 한다.

그리고 강의평가제도의 실효 역시 의심스럽다. 우리는 학생들의 강의평가 내용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며, 내가 한 강의평가가 그 강사의 수업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달리 할 수 있는 바가 없다. 게다가 강의평가는 한 학기 강의가 끝난 후에야 이뤄진다. 이래서는 강의평가제도가 실효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듣는 수업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실효성있고 제도적인 문제제기의 통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실효성있고 문제제기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제도적인 문제제기의 통로가 필요하다. 그러한 통로의 예로 모 대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간강의 평가제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강의평가를 학기 중간에도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은 자신이 지적인 점들이 수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이 듣고 있는 수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평가제도와는 크게 다른 효과를 가진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말에 불편해하는 개인의 예민함이 아니라, 여성을 매도하고 비하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들을 수 있는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이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는 수업에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반여성적인 말을 '부차적으로' 가볍게 언급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여성의 현실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을 드러내 준다. 말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고 웃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부차적인 것이겠지만, 여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은 자신의 삶을 직접 흔들어놓는 것일 수 있다. 여성을, 곧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듣지 않고 수업을 듣는 것은 여학생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이다. 개인적으로 그 권리를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기획자보 II. 여성학 수업의 개설/확충

여성학이 뭐지?

여성학은 여성들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여성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여성학은 인간과 사회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여성학은 과거와 현재의 성불평등의 성격을 규명하고, 가부장적 질서의 형성 및 유지 기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순수학문인 동시에 그의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실천적 학문이다. 여성학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등과 같이 하나의 학문 분야에 국한되기 어려우며,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성격을 지닌다.

· 이화여대 여성학과 사이트 www.ehwawoman.or.kr 에서 발췌

1960년대 후반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난 운동들이 맞물려 생겨난 여성학은 1977년 이화여대에서 처음으로 강좌가 개설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연구되어오고 있으며 서울대에도 1999년 대학원에 '여성학협동과정'이 생겼다. 사회적으로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여성학 수업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학부과정에는 여성학이란 무엇인지를 소개해줄 입문 수업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우리 학교에서 들을 만한 여성학 수업?

여성학협동과정에서는 지난 몇 년 간 여성학 입문수업을 준비해오고 있다. 현재 담당교수와 커리큘럼이 모두 준비되어 있지만 대학본부 측이 신설을 허락하지 않아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과 여성학협동과정 측은 바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성학 수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신설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본부의 벽 앞에서 더욱 다양하고 체계적인 여성학 수업들이 생겨나기는 어렵기만 하다. 본부가 여성학 수업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여성학을 공부한 선생님들을 확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욕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다.

02년도까지만 해도 '여성'에 관련된 수업은 <종교와 여성>, <여성사>, <여성과 사회> 세 개 뿐이었다. 2003년에 들어 법대 전공선택 과목으로 <법여성학>, 2004년에는 핵심교양에 <여성과 법>, <여성과 문학>, 일반교양에 <한국문학과 여성>이 개설되었고, 올해부터 핵심교양으로 <여성과 리더십>이라는 수업이 개설되면서 근 1,2년 사이에 '여성 관련 수업'들이 부쩍 늘어났다.

그동안 여성학 수업 개설현황이 척박했던 것에 비하면 이는 괄목할만한 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담당교수와 체계적인 커리큘럼도 갖추지 못한 채 <여성학 101>이라는 이름만을 붙여 보여주기로 신설하려는 모습은 매우 우려된다. 서울대는 2004년 2월 모 언론을 통해 <한국문학과 여성>, <여성학 미학>, <여성학의 이해>, <섹슈얼리티와 성평등>이라는 수업을 개설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밝힌 바 있지만 실제로 개설된 수업은 <한국문학과 여성> 한 과목 뿐이었다.

여성학 수업 필요성 인식과 개설·확충

현재 존재하는 수업들은 역사, 종교, 문학, 법 등 각각의 분야에서 소외되어왔던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며, 남성중심적으로 성편향된 학문의 커리큘럼을 여성의 시각으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앞서 인용한 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학은 “간학문적, 다학문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여성의 시각을 겸비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들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업이 부족하다보니 몇 개 되지 않는 여성학강의는 거의 다 대형 강의이고, 따라서 토론과 발표 등 생각을 교환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는 어렵다.

타 학교의 경우는 <정신분석과 페미니즘>, <여성철학>, <여성과 일>, <비교여성연구> 등 한 전공에서도 좀 더 세분화된 커리큘럼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학교에도 기본적으로는 여성학 입문 수업들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여성학 수업들도 시대와 주제에 따라 세분화되고 더욱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성 평등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업을 만드는 대학본부 측은 내세우기 위해 줄속으로 수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성학 수업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획자보 III. 젠더인지적 강의의 필요성

두 번째 기획자보에서는 여성학 강의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학문을 여성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여성학 수업은 보다 확충되고 다양화되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성학 강의를 아닌 일반 강의에서도 기존의 성편향적인 연구 내용과 방법을 비판하고, 젠더인지적인 강의로 거듭나야 한다.

여성이 등장하지 않는 강의

일단, 보통의 미술사 수업의 커리큘럼을 살펴보자. 미술의 태동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예술가들 중에, 여성은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남성 예술가에 비해 여성 예술가는 그 수가 확연히 적거나 혹은 있더라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문학도 마찬가지다. 수 백, 수 천 년을 아우르는 문학의 역사에서 여성 작가는 거의 혹은 아예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강의 중에 다루는 여성 예술가나 작가가 적은 이유는, 예술 혹은 문학이라는 영역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온 남성중심적인 담론의 영향이 크다. 이 때 문학사나 예술사를 배운다는 것은 여성이 배제되어 온 과정을 비판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학문과 예술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미 남성의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서 여성 예술가나 작가의 업적이 과소평가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것은 현재에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 성과들에 의해 비판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여성이 부차화되는 강의

이미 정전(正典)인 것처럼 확립해놓은 기존의 커리큘럼에 구색 맞추는 식으로 여성을 끼워 넣는다고 해서 성편향적인 학문의 방법론이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관점으로 찍여진 한 학기의 강의에서, 한 두 시간 정도를 할애하여 여성에 대해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은, 여성의 역할과 업적을 부차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역사 수업의 경우, 여성에 관한 역사적 연구가 여성을 대상으로서만 인식하여 이루어지고, 여성을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

젠더인지적인 강의란!

이것은 단지 우연적이라거나, 강의를 하는 사람의 스타일의 문제라고 말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의 학문적 체계가 형성될 당시의 사회는 여성들을 그러한 영역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남성 중심적인 학문 체계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학문 체계들이 지금 다시 여성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써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여성이나 여성의 업적을 다시 발굴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성차별적인 남성들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학문적 영역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여성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조건들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는 뜻이고, 이것은 결국 강의실 안에서의 성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강의실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일상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강의실에서 이야기되는 내용 자체에 대한 비판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은, 남성이 주류로 등장하는 성차별적인 학문을 거부하고, 여성에 대한 사회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젠더인지적인 강의를 들을 권리가 있다.



기획자보 IV. 강의중 여학우들이 부차화되는 상황

수업시간에 강의자와 토론을 하거나 농담을 주고받는 상황을 그려볼 때, 일단은 남성 교수와 남학우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로부터, 남성이 더 친취적이며, 여성은 보다 정적이고 소극적이라는 고정관념을 재확인하며, 여학우들이 수업에서 부차화되고 그것이 다시 참여의욕의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짚어볼 문제이다.

‘부차화된다’는 것은 학우들이 동일한 수강자로서 수업에 임하고 있음에도 여학우는 주변적 수강자로 규정되고 수업의 중심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강의자가 은연중에 청자를 남학우만으로 규정하여 발언한다든가, 강의자의 수업 방식 및 문화가 남학우 중심으로 편성된 경우가 그러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수업 내용의 이해를 위해 예시가 필요할 때, 다양한 예시 중에서도 유독 스포츠나 군대용어와 같이 남학우들에게 익숙하거나 관심있는 부분을 들어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강의자는 수강자 전반의 이해를 위해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남학우들에게만 유효한 것이다. 여학우들은 청자-일반에서 배제되어 이해를 할 수도, 웃을 수도, 질문을 할 수도 없는 주변적 수강자의 입장에 놓인다. 남학우들은 그러한 예시, 설명이 남성중심적으로 짜여져 있음을 느끼지 못한 채, 남성 강의자와 소통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되며, 그럼으로써 의도와 상관없이 여학우를 배제시키는데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디서 기원했는지 모를 ‘고학번남학우 우대 문화’는 더더욱 여학우 배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강의자는 종종 고학번남학우가 있으면 ‘군대 갔다왔나?’라는 질문부터 시작한다. 이는 강의자와 고학번남학우 사이의 단순한 질문-대답의 관계로 보이지만 다른 여러가지 효과를 낳는다. 남성강의자는 그러한 질문을 통해 고학번남학우와의 배타적인 친밀감을 조성한다. 고학번남학우가 군대를 다녀왔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대’라는 공통의 삶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 ‘같은 남성’으로서의 유대감을 확인하는 것이며, 다른 학우들에 대해 연장자로서의 고학번남학우를 특권화하는 효과가 있다. 강의가 진행되는 한 학기 내내, 강의자는 수업중 고학번남학우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묻고, 그를 적극적인 수업참여자로 지목한다. 상대적으로 연소자-여학우들은 참여 기회를 적게 가지거나, 강의자가 조성한 배타적인 친밀감에 거부감을 갖고 수업의 주변인으로 밀려난다.



앞서 제시한 상황들은 강의자가 주로 남성이며, 남성문화가 곧 일반의 문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강의자가 여학우들을 동등한 수강자로서 인정한다면, 강의자 자신의 연행 하나 하나가 은연중에 여학우들을 배제하고 남학우들만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것은 아닌가, 여학우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문화를 조성하지는 않았는가라는 성찰을 꾸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강의실 뒤집기에서 2학기 강의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강의실도 같이 뒤집으면 낫다”는 옛말이 있듯이,
강의실 뒤집기에서는 함께 할 뒤집개를 모집합니다.

2학기 자신이 듣는 수업에 대한,
여성주의 강의평가를 해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강의평가의 내용은!

- 교수, 조교, 학우들의 반여성주의적 발언사례
- 여학우들을 배제하는 강의 운영의 사례
- 여성주의적으로 문제 있는 커리큘럼 구성, 내용
- 수업 전반에 대한 자신의 소견
- 특히 전공수업과 체육수업, 실습에 관한 모니터링 환영
중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뒤집개로 등록을 하시면!

- 학기 중, 자유롭게 이메일로 자신이 듣는 수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내주세요.
- 학기 말, 강의실 뒤집기에서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여성주의 강의평가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뒤집개 등록 양식! 이메일 go_upsidedown@hanmail.net으로 보내주세요-

필수 : 자신의 이름(본명 또는 별명)

학과 또는 학부

2학기중 자신이 수강하는 강의명, 강의시간, 교수강사 명
하고싶은말

• 뒤집개에 등록한 정보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